

장애등급제 31년만에 폐지

보건복지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원키로 중증 장애인 우대혜택 받도록 등록제도는 유지

저마다 여건이 다른 데도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획일적으로 차등 제공해 온 장애등급제가 도입 31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된다.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을 늘리고 기존 수급자가 탈락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주요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25일 발표했다.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15개 장애유형별로 의학적 심사에 따라 중증도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이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와 지원이 이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의학적 판단이 복지서비스 제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장애인 개인의 욕구나 환경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17년 10월 민관합의체를 구성, 관계부처 공동 준비 과정을 거쳐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개정

장애인복지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1등급(최중증)에서 6등급(경증)으로 구분해 온 장애등급이 도입 31년 만에 사라진다.

다만 1~3급 중증 장애인이 우대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장애정도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는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된다.

중증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되므로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새 등록증에는 장애인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증'과 '경증'으로만 표기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맞춰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 소득이 없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비수급 빈곤층' 같은 사각지대가 장애등급제 폐지로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잘 세우기 하던 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서비스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해 제

공된다. 종합조사는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거주특성, 주거특성 등 조사항목별로 문항별 점수를 국민연금공단이 현장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음달엔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종합조사가 도입되고 특별교통수단 등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는 2020년, 장애인연금 등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장애등급 폐지, 지원 확대와 함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등록 후에도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소득수준 등 변경 시 '행복e음'으로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한 신청을 안내하는 '서비스 수급 희망 이력관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 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 때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해 장애유형별 이해야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뉴스



25일 전주 오펜리스에서 열린 6.25전쟁 제69주년 기념행사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단체 등이 결의문 낭독을 하고 있다.

“나라 위해 헌신하신 숭고한 희생정신 잊지않겠습니다”

도, 6·25 제69주년 기념행사 개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전북도는 25일 오전 10시, 전주 오펜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6·25전쟁 제69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참전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전북도와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전북도지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도내 기관·단체장과 6.25 참전용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식전행사로 퓨전국악 소리꾼, 난타, 발리무용단 공연에 이어 보훈유공자(4명) 표창과 대회사, 기념사, 6·25노래 합창, 결의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안보의지를 다지

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회사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행복은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눈물위에서 피어났고, 참혹한 전선에 뛰어든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그 분들의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정보수집부터 면접·채용까지 윈스톱!

전북도, 내일 선도기업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 개최

전북도는 내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도내 제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선도기업과 예비취업자를 연결시켜주는 2019년 상반기 선도기업 구인·구직 현장 면접의 날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전북테크노파크, 캠퍼스종합기술원, 전주공용노동지청 등과 공동 진행하며 전라북도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홍보에서부터 면접, 채용까지 윈스톱으로 추진, 기업의 채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구인·구직 현장면접의 날에 (취)면

면접퍼지트, 대우전자부품(주), (주)대우식품, 비나텍(주) 등 선도기업 37개사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관리직, 연구직,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4명 이상의 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면접은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진행되고, 효율적인 구인·구직 활동을 위해 채용전문 구직 사이트인 사람인을 통해 사전접수가 가능하다.

사전접수를 하지 못한 구직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하여 방문

할 경우 현장에서 채용상담과 면접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북테크노파크 또는 캠퍼스종합기술원으로 하면 된다.

부대행사로는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에서 구직활동관, 직업선호도 검사관, 퍼스널컬러진단, 문서지원관, 사 진활동관 등을 운영해 방문하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남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채용정보 수집부터 구직자 모집, 면접 지원 등 선도기업 신규 인력채용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본 행사를 마련하게 됐으며, 특히 고용유지 모나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채용성과를 도출해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익산시 국제식품컨퍼런스·소스산업 국제심포지엄 열려

농식품부와 전북도, 익산시가 주최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국제식품컨퍼런스 및 소스산업 국제심포지엄'이 25일부터 이틀 동안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열린다.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입주기업과 국내외 식품업계, 산학연 관계기관, 소비자가 함께 모여 식품 시장의 트렌드와 식품의 맛, 소비자 분석 특화기

술을 공유하고자 한다.

국제식품컨퍼런스가 열린 첫날인 25일에는 오후 9회째로 국내외 식품 및 연관기업, 유관기관의 글로벌 식품 최신 기술과 동향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국제행사로 미국·유럽·일본·홍콩을 비롯해 국내 식품 관련 기관과 전문가가 초청됐다.

'식품의 맛!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문

고 세계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식품의 연구동향 및 트렌드'부터 '식품 개발까지 폭넓은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했다. 소스산업화센터 국제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소스 전문가들의 소스 상품화 전략 및 제품 개발 등의 사례 발표를 통해 소스 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부대 행사로 전시 부스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벤처센터·창업지원랩 제품과 지원사업 대표사례 등이 전시된다. /익산=장인현 기자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30일 새만금서 '광파르'

유명 프로선수 비롯 국내·외 1000여명의 철인 참여 챌린지 엑스포·웰컴파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져

2019 챌린지 군산 새만금 국제 철인 3종 경기대회가 오는 30일 군산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25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가 비응도와 새만금, 고군산연결도로 등 군산 지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는 철인3종 세계랭킹 상위권에 있는 유명 프로선수를 비롯해 국내외 1,000여명의 철인들이 참여한다.

챌린지 군산 새만금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는 30일 오전6시30분 수영 종목부터 시작되며, 모든 참가 선수들은 수영(1.9km)과 사이클(90km), 달리기(21km)를 8시간 이내에 완주해야 한다.

본 대회에 앞서 29일부터는 새만금 비응공원 일대에서 챌린지 엑스포와 웰컴파티,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펼쳐진다. 전북철인3종협회 김연수 전무는 “대

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새만금을 전세계에 알리겠다”며, “경기진행으로 통행에 제한이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철인3종협회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새만금을 세계적 인 철인3종 메카로 만들고, 더 나아가 '챌린지 아시아-퍼시픽 챔피언십' 대회도 유치할 계획이다.

대회 진행으로 인해 당일 오전7시부터 10시까지 사이클 주로(신시도~장지도 구간)에 대한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